

생리컵의 무한한 장점에도...

공공장소에서 처리하기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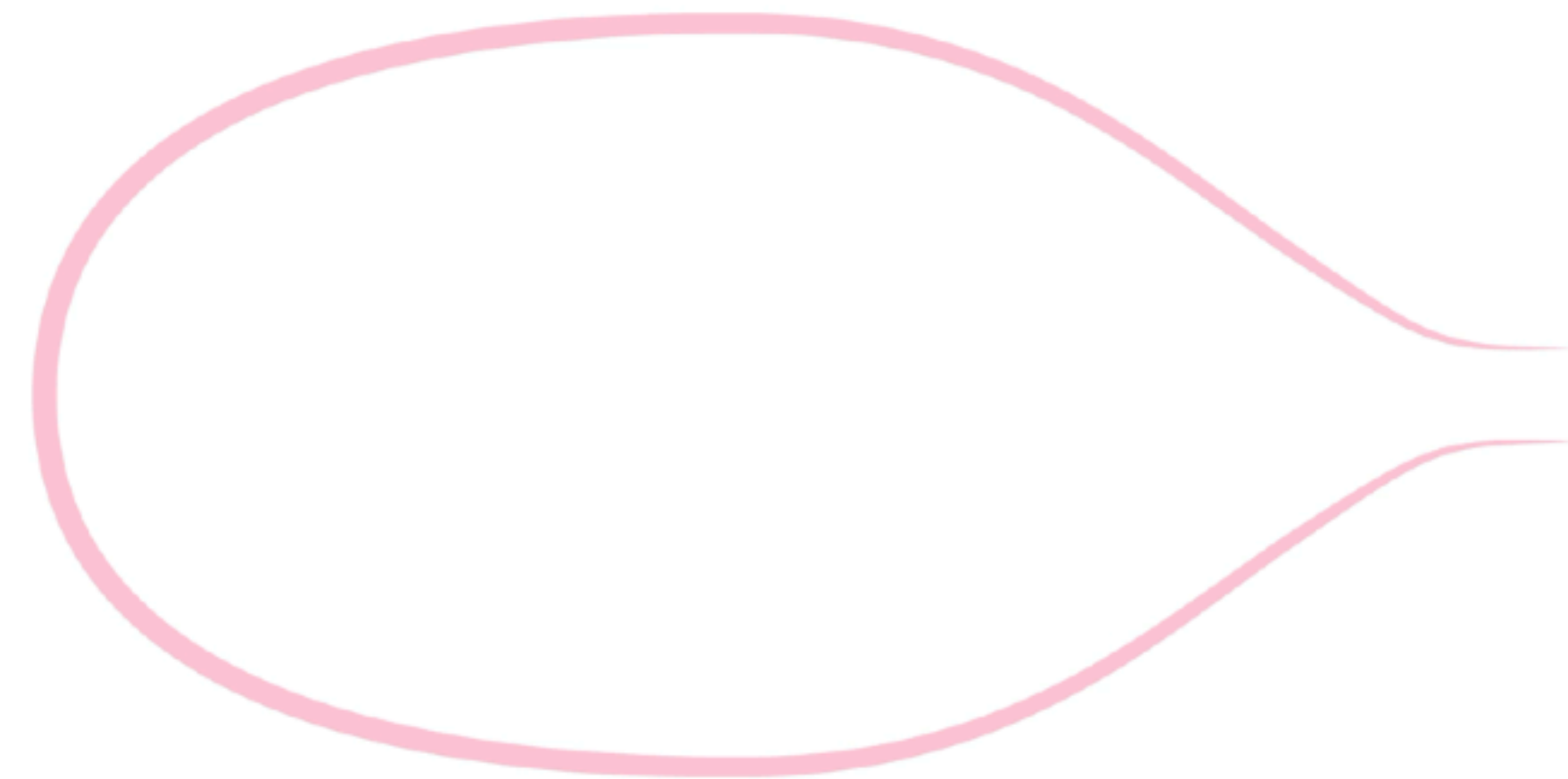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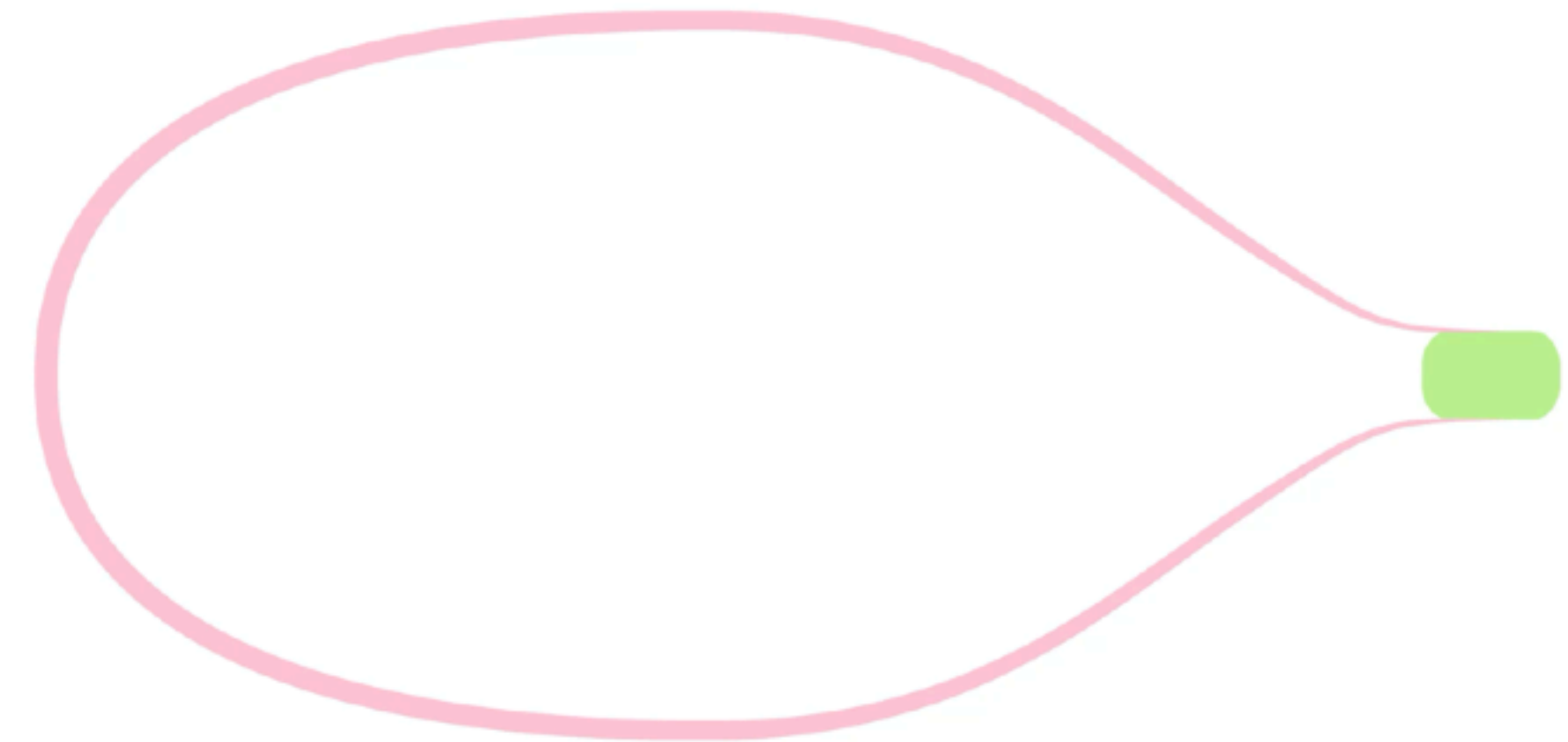
손으로 넣고 빼야하기에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.

10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권장하기 부담스럽다.



많은 여성들이 다음날 일어나면 엉덩이에 피가 범벅이 되어있다. 그 찝찝한 느낌이 싫어서 취침시에도 생리컵, 탐폰을 쓰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. 생리컵, 탐폰을 쓰면 생리학적으로 나와야 할 혈액이 몸에 고여있게된다. 결국 자궁내막증 위험 증가.

잘때 만이라도 생리혈이 자연히 흐르도록 놔둬야 한다.





10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